



CTN봉사단과 러브인캄코, 캄보디아 인재양성 동행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방문 한국어학당 건립

CTN신문사(대표이사 가금현)의 직원과 후원인으로 구성된 CTN봉사단과 국제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러브인캄코는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보급과 문화교류를 통한 인재양성에 두 팔을 걷었다.

이들 봉사단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시엤림에 한국어학당과 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건축에 참여 구슬땀을 흘렸다.

현지민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과 캄보디아 간 문화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캄보디아의 차세대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 연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캄보디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러브인캄코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망고 농장에서 생산된 망고를 씨엤림 지역의 보육 시설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캄보디아 내 여러 복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국제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금현 회장은 CTN신문사의 대표 이사이면서 러브인캄코 회장으로 지역 사회와 세계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고 있다.

가금현 대표이사는 “이번 시엤림에 건립되는 한국어학당과 문화교류센터는 러브인캄코와 함께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를 익히도록 해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시작은 비록 작지만 러브인캄코에서 중학교 건립까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CTN신문사와 CTN봉사단은 이를 위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끈끈한 관계를 다지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더 널리 퍼트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TN봉사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월 5만원(1년 6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말 기부영수증이 발행된다.

러브인캄코는 1구좌 매월 5천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러브인캄코는 오는 4월 17일부터 22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망고 수확을 위해 국제봉사에 나서는 가운데 봉사자들은 항공료 등 체류비용 일체 자부담으로 진행되며,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만 회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진 기자

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승리!

목포 유달산 봄 축제...4월 5-6일 개최

2025년 유달산 봄축제가 내달 5일과 6일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 '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승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는 '만호수군 출정 퍼레이드'와 '봄꽃 토크 콘서트'다.

특히 만호수군 퍼레이드는 올해 스토리텔링형 퍼포먼스를 결합해 한층 더 현장감 있게 펼쳐진다.

예적의 침입과 농민군의 함류 등 실감나는 장면들이 펼쳐지며, 기존 퍼레이드와 차별화된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퍼레이드에는 생활대축전 퍼레이드단, 동 대표단, 해양대학교, 목포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역사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4.8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기존 식전 행사에서 벗어나 퍼레이드 직후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더욱 몰입도 높은 구성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봄꽃 토크 콘서트는 첫째 날 조지와 키썬이, 둘째 날 정다경, 최수호, 서지오, 이소나가 무대에 올라 유달산의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도심 속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음식부스와 푸드트럭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푸드트럭 선발을 위해 맛, 중량, 가격 등을 평가하는 시식회를 열어 엄선된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먹거리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목포시는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축제 기간 동안 '원도심 할인 이벤트'와 '육단이 길 순례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협약식이 지난 13일에 진행됐으며, 50여 개의 상자가 참여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유달산 플라워&엔플러그드 경연대회, 노적봉 만들기, 조선 수군 병영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5 유달산 봄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통해 목포의 역사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목포의 봄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유달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2025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 영예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주관,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 선정돼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아시아 대표 문화유산 축제로 인정받았다. 21일 당진시(시장 오성환)에 따르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2025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에서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아시아피나클 어워즈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지속 가능성, 퍼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축제에 시상되며, 향후 세계축제협회 월드 피나클 어워즈의 예선 역할을 하게 된다.

2025 세계 축제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며, 총 10개 분야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이 중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선

정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국내외 줄다리기를 소재로 한 이색 축제다. 특히, 소극적인 관람 위주의 다른 축제와 달리, 참가자들이 직접 줄다리기에 참여해야 하는 '참여형 축제'라는 점이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홍섭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장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이하는 2025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직전 이러한 수상으로 매우 기쁘다"며 "명성에 걸맞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가금현 기자

도심속 힐링의숲, 총 797.7억 원 투입 '보문산 프르내' 조성 본격화

1단계(목달지구) 2026년, 2단계(구완지구) 2028년까지 단계적 추진

대전시가 보문산 권역을 대전 대표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국유림 사용 허가를 확보하면서, 3월 14일 부지 조성을 위한 조정·토목 공사에 착수했다.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보문산 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의 대표 녹지공간인 보문산 권역의 풍부한 녹지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797.7억 원을 투입해,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1단계 목달지구와 2단계 구완지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2026년 9월, 2단계 사업은 202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는 2022년부터 체계적으



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 사전임지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의 청사진을 완성했다. 그 결과, 중구 목달동에서 구완동에 이르는 296만㎡(약 90만 평) 규모의 광활한 산림에 걸쳐 산림복지·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했다.

프르내 자연휴양림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으로 조성된다. 대교 숲, 탄생 숲, 유아 숲, 숲 체험원, 산림욕장, 반려인 숲, 산림 경영 숲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숲을 마련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시설 ▲자연 체험 ▲반려인 숲 ▲보전형 교육 ▲자율적 치유 레포츠 지구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산림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 속에서 머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50실(휴양관 18, 연립동 12, 숲속의 집 20)과 캠핑장 20면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태자원과 연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르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보문산 권역은 자연과 휴식, 체험이 결합된 대전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명소로 자리잡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 권역은 대전의 귀중한 자산이며, 프르내 자연휴양림은 이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중요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치유 받으며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산림 복지·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8년 조성이 완료되면, 보문산 권역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대전의 새로운 명소가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공주시, 2025 계룡산 벚꽃 축제 27일 화려한 개막

3월 27일부터 12일간 행사 진행

'2025 계룡산 벚꽃축제'가 오는 3월 27일 개막하여 4월 7일까지 12일간 공주 계룡산 동학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중부권 최대 벚꽃 군락지를 자랑하는 계룡산 일대에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개막식은 3월 29일 오후 2시 학봉 1리 경로당 옆 야외 무대에서 개최되며,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예술인 공연, 버스킹 문

화공연,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상춘객과 등산객 등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동안 행정안전 지원반을 운영하고 축제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계룡산 동학사 벚꽃 만개 모습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도로변 노점 정비와 교

통질서 유지를 통해 민원 발생 요인을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연근 기자

증평 좌구산천문대 '별 하나 하나... 별을 찍고 추억을 담다'

밤하늘의 신비를 내 손으로 직접 담아 보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증평 좌구산천문대가 군민을 위한 맞춤형 천문교육 프로그램 '별 하나, 나 하나'를 운영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스마트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특별한 체험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직접 별과 행성을 촬영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스마트 천체망원경은 망원경과 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장비로, 별과 행성을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어 천문학 초보자도 손쉽게 고화질 천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스마트 천체망원경 사용법을 익히고, 일주일간 대여해 집 근처에서도 별빛을 기록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은 인화해 액자로 제공되며, 나만의 별을 간직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좌구산천문대는 천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스마트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하늘빛 저장소'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이번 '별 하나, 나 하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좌구산천문대 홈페이지(https://www.jp.go.kr/star.do)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좌구산천문대(☎043-835-4573)로 하면 된다.

천문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직접 별과 행성을 촬영하며 천문학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스마트 천체망원경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밤하늘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해 특별한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